



국내 항생제 내성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함께 뭉친다

- 비인체 분야 항생제 내성 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공동 노력
- 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하여 항생제 내성 발생과 내성균 확산 방지
-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

정부는 식품생산, 환경 등 비인체 분야*에 의한 항생제 내성 확산 방지를 위해 기관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 워크숍을 9월 6일 개최했습니다.

* (농식품부) 축사, 가축, (환경부) 물환경, (해수부) 양식장, 수산생물, (식약처) 가공·유통단계 식품

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부처에 서로 파견된 연구자들이 그간 수행한 사업의 결과와 향후 협력 방안*에 대해 논의하고 ‘2022년도 국가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-동물, 축산물’ 결과를 공유했습니다.

* 생산단계(축사, 양식장 등)-하천 환경 모니터링-축수산 식품 내성균 모니터링 조사결과 등

또한, 분야별 항생제 판매량, 내성을 조사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 중인 항생제 통합정보시스템의 공동 개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.

그 간 부처가 담당하는 영역별로 항생제 내성 저감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항생제 내성균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개별적인 관리보다 통합적인 개념(One Health*)으로 접근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한 바 있습니다('22년~).

* 원헬스(One Health)란? : 환경, 동식물, 사람의 건강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

이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부처 전문가를 파견*하여 분야별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, 내성균 추이를 주기적으로 검토·평가하고 각 분야를 연계하여 항생제 내성저감 통합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
* 식약처↔해수부, 농식품부↔환경부 각 연구관 1명(총 4명)

참고로 관련 부처는 우리나라의 비인체 분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결과를 유엔식량농업기구·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유*하고,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인 항생제 내성 저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.

* (유엔식량농업기구, FAO)아시아, 중남미 대상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저감사업 ('21~'25), (세계동물보건기구, WOA) 아시아 국가 대상 항생제 내성 검사 워크숍 개최,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

정부는 앞으로도 항생제 사용에 의한 내성 발생과 식품, 환경으로 전파되는 연관성 등을 조사·연구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부처 간 긴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<붙임1> 2023년 비인체분야 항생제 내성 워크숍

<붙임2> 보도자료 관련 Q&A

담당 부서	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	책임자	과 장	윤순식 (054-912-0722)
		담당자	연구관	박응로 (054-912-1230)
	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	책임자	과 장	윤정기 (032-560-8340)
		담당자	연구관	이지연 (032-560-8399)
	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	책임자	과 장	조미영 (051-720-2470)
		담당자	연구관	권진욱 (051-720-2472)
	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성일 (043-719-3240)
		담당자	연구관	정지연 (043-719-3242)
	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	책임자	과 장	김순한 (043-719-4301)
		담당자	연구관	정현미 (043-719-4324)

□ **개요**

- 일시: '23. 9. 6.(수), 14:00 ~ 16:40
- 장소: 오송컨벤션센터 소회의실(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)
 - *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-41
- 참여: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, 평가원 미생물과, 농식품부 검역본부 세균질병과, 환경부 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, 해수부 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
- 일정

시간	주요내용	비고
14:00~14:10	개회	식품의약품안전처 (축산물안전정책과)
14:10~14:20	비인체분야 항생제 내성 협업 그간 성과	식품의약품안전처 (축산물안전정책과)
14:20~14:50	축산분야 항생제 판매량 및 내성률 변화	식품의약품안전처 (축산물안전정책과)
14:50~15:10	평가원 협업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	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(미생물과)
15:30~15:50	농식품부 협업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	농림축산검역본부 (세균질병과)
15:50~16:10	환경부 협업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	국립환경과학원 (상하수도연구과)
16:10~16:30	해수부 협업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	국립수산과학원 (병리연구과)
16:30~16:40	폐회	식품의약품안전처 (축산물안전정책과)

연 번	질 문	답 변
1	항생제 내성이란 무엇인가요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생물이 항생제에 저항해 생존 혹은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. ○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미생물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가 듣지 않게 돼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. ○ 사람에게 혹은 가축 생산·수산 양식에 항생제를 오남용하게 되면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게 됩니다.
2	비인체 분야 항생제 내성 협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처간 협업을 활용하여 비인체 분야 항생제 내성 발생 및 확산 최소화를 목표로한 사업으로 식약처, 농식품부, 환경부, 해수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. * (농식품부) 축사, 가축, (환경부) 물환경, (해수부) 양식장, 수산 생물, (식약처) 가공·유통단계 식품 ○ 기존 부처 간 분절적 대응 수준인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을 연계 하고, 분야별 판매량 등 정보를 상호 교류하여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- (농식품부-환경부 연계) 농식품부는 축사와 가축을, 환경부는 축사에서 배출되는 오·폐수를 감시하며, (해수부-식약처 연계) 해수부는 양식장 및 수산생물을, 식약처는 유통 수산물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
3	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은 어떠하며, 왜 국내·외 공조가 중요한가요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험 중 하나로 경고하고 '조용한 팬데믹(Silent Pandemic)'으로 여길 만큼 시급한 보건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. - 유엔환경계획 '항생제 내성보고서(Bracing for superbugs, 2023년)'에 따르면 매년 약 500만명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고, 30여년 후에는 교통사고나 암보다도 사망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. ○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여명이 항생제 내성과 관련하여 사망한 다는 연구결과(서울분당병원, '19)가 있습니다. ○ 항생제 내성 문제는 어느 한 분야, 한 국가가 잘해서 해결할 수 없고, 모든 국가가 원헬스 측면에서 환경·동식물·인체보건 등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* 가축 사육이나 어류 양식에 활용되는 항생제는 인체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항생제도 사용되고 있으며, 세계보건 기구는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70~80%가 식품생산에 활용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4.	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는 무엇인가요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공동으로 동물과 축산물 분야에 대한 항생제 판매량과 내성 등을 조사하여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각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.